

# 城邑民謠의 實相

金 榮 敦

## 目 次

1. 머리말
2. 城邑民謠의 背景-城邑里概觀-
3. 城邑의 唱民謠
4. 城邑 特有的 勞動謠
5. 結 言

## 1. 머 리 말

1920년대 이래 어려운 與件을 헤치며 꾸준한 작업이 이어지기는 하지만, 韓國民謠의 研究는 아쉽 게도 틀이 제대로 잡히지 못한 오늘이다. 여태껏 《韓國民謠概論》 한권 없고 韓國民謠分布圖도 마련 되지 못한 형편이다. 다른 口傳文學에 비하여 자료만은 꽤 수집되었다고 하지만, 그 성과는 氷山의 一角에 머문 실정ियो, 더구나 理論定立은 설화나 관소리에 비해서도 훨씬 뒤졌다.

지금 이 時點에서 우리가 시급히 서둘러야 할 先行課題는 전국 어디에 어떤 종류의 민요가 어떤 모습으로 전승되는가 그 實相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그 實相이 철두철미 타당한 방법에 따라 파악되지 않고는 어떠한 理論展開도 옹골차게 이룩될 수 없다. 자료가 충실히 모아지고 그 正體가 立體的으로 밝혀지지 않은 채 어찌다가 일부 드러난 남의 자료를 대상으로 거기서 무슨 뜻부터 찾으려 함은 무모한 일이다. 자칫 徒勞에 빠지기 쉬운가 하면, 작업의 순서로서도 어그러진다. 달리 다가 몇알의 산나무 열매를 따 먹고 온 산의 열매맛을 헤아리듯 洞窟의 謬謬에 빠지기 쉽다.

물론 우리는 金素雲·任東權 외 몇몇분의 자료를 대하고 있으며, 1979년 이래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 《韓國口碑文學大系》 여러권을 획기적으로 간행함으로써 가멸진 자료가 상당량 생생하게 확보되어 가기는 한다. 그러나 한국민요의 實體의 대강을 파악하기에도 울창한 숲속에 들어선 듯 어둡침침하고 헤쳐 가야 할 길은 까마득한 실정이다. 농부가 발구석에서 발구석으로 차근차근 愚直하게 김을 매어 가듯이 우리의 精誠과 時間과 經費는 전국민요를 마땅한 방법에 따라 살살이 수집하

는 일에 우선하여 대폭 투자되어야 옳다.

울창한 숲과 같은 그 숲한 민요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잘 훈련된 상당한 人的要素와 經費 및 이를 주도해야 하는 機構가 절실히 요청되므로 이는 국가적 차원의 높은 관심과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 요마적에 이르러 이 땅 젊은이들 사이에서 口傳文學이나 傳統藝術에 대한 관심이 썩 高調되어 감은 우선 반가운 일이다. 바람직한 일임에는 어김없으나, 다만 너무 성급하게 <~에 나타난 意識構造> 등 서둘러서 어떤 意味를 찾기에만 급급하는 경향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치면서 持久力 있게 現場調査에 敢耐한 바탕 위에 그 分析和 理論이 걸여져야 한다. 민요의 現場調査는 한 지역이나 마을만을 조사대상으로 택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과, 한 종류의 민요만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마을을 누비면서 조사하는, 대체로 두가지 방법이 있겠다.

城邑里(南濟州郡 表善面) 한 마을 민요의 대체적인 實體를 간추려 보고 그 一次的 特性을 살펴 보려는 이 작업도 濟州民謠, 나아가서는 韓國民謠의 제 모습의 한구석을 살펴려는, 벽돌 한장격의 기초공사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城邑民謠의 背景인 城邑里를 개관한 다음에 5백년의 도읍이었던 城邑, 곧 정의고을의 민요가 제주도 여느 마을의 민요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가에 치중하여 그 대체적인 實相을 고찰하려 한다.

## 2. 城邑民謠의 背景-城邑里概觀-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는 1423년(世宗 5년)~1914년의 약5세기 동안 旌義縣의 縣廳所在地였던 山間農村으로서 '旌義고을'(줄여서 '정골')이라고도 불린다. 해안마을 表善里에서 8km쯤 올라간 아늑한 山村인 城邑里는 정부지정 민속마을<sup>1)</sup>로서 민속학적인 가치와 個性味 짙은 觀光對象地로서의 特性을 두루뭉수리로 지닌다.

5백년간의 고을이면서 農畜을 겸한 山村이라는 二重的 特異性格을 지녔다는 점에서 이 빛깔 짙은 城邑에 대한 우리네 관심은 유다르다. 몇몇 조사보고 등이 마을에 대한 參考論著 가운데 요마적의 작업 몇가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1968, 金榮敦: 「濟州島の 石像・石具」(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제50호), 文化財管理局.
- 1973, 金榮敦: 「旌義고을」(民俗資料保護區域調査報告書 제5호), 文化財管理局.
- 1976, 金榮敦: 「民俗村指定保存에 따른 指定對象村落概要 및 保存方向」, 濟州道, 1976.
- 1977, 濟州大國語教育科: 「學術調査報告書 제6집: 城邑里學術調査」.
- 1978, 金鴻植: 「民俗村指定對象地域調査報告書: 城邑一里, 東明里南門洞 및 明月里下洞」, 濟州道.
- 1979, 李衡祥: 「耽羅巡歷圖·南宦博物」,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1979, 徐庚林: 「濟州民俗의 觀光資源化方案: 表善面 城邑里를 中心으로」, 「제주대학논문집 제10집, 인문·사회과학편」.
- 1983~85, 金榮敦: 「旌義고을(1)(2)」, 「耽羅文化」 제2호, 제4호,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金榮敦(1973)의 修正轉載].

1) 1980년 5월 6일에 地方民俗資料 제5호로 지정, 보호되다가 1984년 6월 7일 政府指定 重要民俗資料 제198호로 지정되었다. 指定保護區域은 1,425필지, 3,191,711㎡(965,488.23평)에 이른다.

- 1983, 玄容駿·金榮敦:「韓國口碑文學大系 9-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1984, 권오성·김영돈·이보형·한만영·최종민:「韓國의 民俗音樂:濟州道民謠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城邑里는 316家口에 1,329명(男 634명, 女 695명)의 城邑一里와 69家口에 265명(男 137명, 女 128명)의 城邑二里로 나누어진다(家口 및 人口統計는 1984년 10월 1일 현재). 역시 山村이면서 고을이라는 兩面性이 接木되었다는 점이 이 마을의 유다른 빛깔이다.

제주도는 朝鮮初 太宗 16년(1416)부터 약5세기 동안 그 행정구역이 세지역으로 나누어졌었다. 곧, 漢拏山을 가운데 두고 山北은 濟州牧, 山南은 兩分되어 西는 大靜縣, 東은 旌義縣이었다. 이 三縣分立期間은 1914년까지 이어졌었으니, 무려 498년간에 이른다. 원래 旌義縣의 고을은 城山邑 古城이었다. 古城里는 旌義縣의 변두리라는 이유 등으로 불과 7년만인 世宗 5년(1423)에 고을을 城邑으로 옮겼으니, 이곳을 고을로 택한 까닭으로는 그 風水地理의 見解도 다분히 고려되었을 법하다. 城邑마을 뒤에는 瀛洲山(325m)이 後見人처럼 의연하고 평퍼짐한 大平原이 펼쳐지는 가운데 으젓한 오름(峰)들이 마을을 감싸며 불쭙불쭙 솟았다. 냇기(川尾川)를 따라 천천히 걸어 올라가며 묵묵히 이 景觀을 대할 때면, 韻致 같은 大自然의 饗宴에 우선 압도된다.

城邑마을 면적의 86%는 탁 트인 牧野地다. 따라서 주민들 대부분의 生業은 半農半畜인데, 農土는 비좁고 메마르며, 油菜·靑茅 및 柑橘生産이 걸따른다.

느티나무와 팽나무(天然記念物 제161호), 日觀軒(地方文化財 제1~7호), 城址, 旌義鄉校(地方文化財 제1~5호), 벽수머리(또는 무성목·돌하르방) 12기(地方文化財 제4~2호)와 고령오·조일훈·이영숙·한봉일·고상은의 家屋(각각 重要民俗資料), 西上洞 한동네의 草家集團保存 등은 현청소재지였던 殘痕으로서 그 가치가 珍重하다. 縣廳所在地로서의 舊官署들이 더러 文獻에 남겨지고 口傳되기도 하지만, 그 위치와 모습을 살살이 파악하기란 至難하다.

酬祭對象神 가운데 〈牧童神之位〉가 끼어들었다든가, 公認宗教를 受容하는 태세가 소극적이어서 吾不關格이라든가, 근래까지 걸궁이 盛行했다든가 하는 몇가지 현상도 주목할 만하다.

城邑의 里勢盛衰는 특히 1930년대 이후 그 굴곡이 無常하다.<sup>2)</sup> 그 家屋構造도 다른 마을들과는 좀 다르며<sup>3)</sup>, 한 울타리 안의 家屋棟數도 비교적 많은 듯하다. 1人 혹은 2人家族世帶數의 비율이 높다든가 하는 家族構造의 특이성도 드러나며 初婚年令도 낮다.<sup>4)</sup>

城邑을 둘러싼 研究課題는 실로 漢拏山 같은데, 몇가지만을 간추리더라도 흥미있는 事案들이다.

- ① 城邑地形의 風水地理의 觀點
- ② 縣廳所在地로서의 舊官署 確認

2) 表善面 事務所가 城邑里에서 表善里로 옮겨진 다음해인 1935년 당시만 하더라도 表善面·城山邑등 이웃마을에 비하여 城邑里의 人口數가 가장 많았는데(城邑里 372호, 表善里 320호), 1972년에 이르자 表善里의 절반 이하(城邑里 342호, 表善里 736호)로 줄어드는 變動을 겪었다.

3) 金正基·金鴻植:“建築篇”,《濟州道 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 pp. 263~330, 濟州道, 1973.

4) 拙稿(〈旌義고을(2)〉《耽羅文化》제4호, 濟州大耽羅文化研究所, 1985)의 ‘現年令과 初婚年令과의 關係’圖表(p.11) 및 ‘初婚年令’ 그래프(p. 12) 參照.

- ③ 벼수머리(무성목·돌하르방) 考察
- ④ 民間信仰의 特質
- ⑤ 公認宗教에 대한 不關與性
- ⑥ 結宮의 實相과 그 由來
- ⑦ 민요의 特性
- ⑧ 家屋構造의 특징
- ⑨ 家族構造의 특징 및 早婚風習
- ⑩ 里勢變動
- ⑪ 住民의 意識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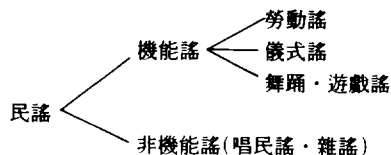
### 3. 城邑의 唱民謠

城邑은 넉넉할 만큼 山川이 秀麗한 산간마을이라는 점과 아울러, 5세기 동안 旌義縣의 고을이라는 점이 어울리어 그 個性을 짙게 풍긴다.

정부지정 민속마을이라고는 해도, 주민들의 삶은 한갓 산촌마을의 外樣의 生活樣相과 다를 바 없게 보이겠지만, 사람들의 사는 모습과 思考와 價値意識 어딘가에는 지난날의 고을의 韻致가 적출처럼 흐르는 듯하다. 城邑은 山村이면서 고을이라는 二重의 性格을 띠거니와 城邑民謠 역시 兩面性을 지녀서 이 두 갈래를 두루뭉수리로 전한다. 그 하나는 제주도의 여느 山村에서나 전승되는 勞動謠·儀式謠 등이며, 다른 하나는 오랜 세월 고을이었기 때문에 전해지는 城邑만이 지니는 唱民謠다. 城邑民謠가 個性 짙고 豐盛한 까닭은 城邑 자체가 二重性格을 띠기 때문이다.

도내 여느 마을에서나 마찬가지로의 勞動謠(맷돌·방아노래, 타작노래 등)와 儀式謠(행상노래, 달구노래 등)가 城邑에서도 전승되는 한편, <용천검>·<관덕정>·<중타령>·<질군악>·<오광산타령>·<사랑가>·<жат은사랑가>·<계화타령>·<동풍가> 등 도내 어느 마을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唱民謠가 전한다.

唱民謠란 명칭은 혼란을 쌓은 전문가에 따라 흔히 불린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서 雜謠, 혹은 通俗民謠라 하기도 한다. 이 唱民謠는 단지 노래하며 즐긴다는 것뿐이지, 實生活上의 일정한 機能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非機能謠라 볼 수 있다. 민요 자체가 實生活에 寄與하는 바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민요는 機能謠와 非機能謠로 일차 나누어진다. 곧 농사나 어업을 치르는 데 이바지하는 勞動謠, 장례 같은 의식을 치르는 데 이바지하는 儀式謠, 무용이나 유희를 진행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舞踊·遊戱謠 등은 정해진 機能을 지녔으므로 機能謠로 묶을 수 있는가 하면, 단지 노래 그 자체만을 즐길 뿐인 唱民謠(雜謠)는 구체적인 민간생활 속에서 무슨 그렇다할 실질적 기능을 지니 있지 않으므로 非機能謠로 본다.



濟州民謠에서 非機能謠는 그 비중이 여리다. 굼뜬한 제주도민들은 사시사철 勞動에는 극성스럽지마는, 흥청거리고 노는 데는 별로 관심을 쏟지 않아서인지, 그들의 唱民謠 혹은 雜謠라는 非機能謠는 다채롭질 못한 셈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城邑民謠에서만은 唱民謠가 가멸질 뿐더러 아직도 간드러지게 부른다. 이 사실은 城邑民謠의 個性이며 資產이다.

現傳 城邑의 唱民謠는 濟州의 唱民謠를 總一한다. 곧 濟州의 唱民謠는 다음의 세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sup>5)</sup>, 그 本據는 城邑으로 쏠린다.

- ① 濟州도 전역에 분포된 唱民謠~오돌또기·이야흥·서우켓소리·너냥나냥 등.
- ② 城邑에서만 불리는 唱民謠~관덕정알·계화타령·질군악·사랑가·용천검·중타령 등.
- ③ 城邑에서 주로 불리지만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가끔 불리는 唱民謠~동풍가·봉지가·산천초목·오광산타령 등.

城邑의 唱民謠를 응골차게 고찰하려면 특히 音樂의 分析이 절실하다. 곧 민요는 가락과 사실과 기능이 두루뭉수리가 된 載口演되는 특질을 지니므로, 그 연구는 音樂的, 文學的, 民俗的 세 측면에서의 考察이 다같이 필요한 터인데, 唱民謠는 특히 가락자체가 생명이므로 音樂의 分析이 주장이 된다. 音樂의 考察이 우선 進境을 보일 때 城邑 唱民謠의 제 모습과 그 바탕이 드러나리라 본다.

城邑 唱民謠에 대한 音樂的 分析은 羅運榮<sup>6)</sup>·李輔亨<sup>7)</sup> 등에 따라 진전되어 왔으며, 《韓國의 民俗音樂: 濟州도민요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에도 몇편의 採譜가 실렸다. 그 분석결과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

① 城邑은 본토의 옛민요가 보존되는 貯藏庫의 기능을 담당해 왔을 만큼 오늘날에도 본토 唱民謠가 流入, 變異된 희귀한 모습으로 전승된다.

- 관덕정알(신목사)~京畿道 廣州地方의 <길타령> 또는 <지화자타령>과 관계가 있고 그 사실이 濟州化한 듯하다.
- 계화타령(황계타령·김계화)~지금은 드물게 전승되는 慶尙道의 옛민요 <계화타령>과 가락과 사실이 거의 같다.
- 봉지가~同名의 民謠가 본토 각 지방에 있었다.
- 산천초목~본토의 산타령계 음악과 관계가 있다. 그 사실 첫머리는 京畿 및 西道立唱의 <놀랑>, 南道雜歌 <花草사거리> 사실의 처음과 같다. 申在孝本 <가루지기타령>과 <홍보가>에 삽입된 <거사사당소리>에도 비슷한 사실이 드러난다.
- 질군악~本土雜歌인 十二歌詞 <질군악> 및 본토 각지방에 흩어진 민요 <질꼬내기>와 비슷하다.
- 동풍가~본토의 옛민요 <난봉가>와 관계된다.

5) 권오성·김영돈·이보형·한만영·최종민; 《韓國의 民俗音樂: 濟州도民謠篇》, p. 21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6) 羅運榮; “濟州島民謠의 作曲學的研究(1): 音樂構造를 中心으로”, 《延世論叢》9, 延世大學校大學院, 1972.

7) 李輔亨; “音樂과 舞蹈”,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篇》, pp. 285~315, 1974.

- 오광산타령(사거리)~본토의 산타령계 음악과 관련이 있다. <사거리>라는 노래이름은 본토 산타령에서도 볼 수 있다.
- 용천검(남사당·사당소리)~본토의 사당패음악과 관계될 듯하며 力動的인 가락이다.
- 개구리타령~京畿民謠 <청개구리 타령>과 사설과 가락이 아주 비슷한데, 京畿地方에서도 이를 부르는 이가 드물다.
- 술학타령~본토의 옛민요로 <배꽃타령>이라고도 한다.
- 오동추야~본토 산타령계 민요인 듯하며, 흥보가에도 短歌라는 이름으로 삽입되어 있다.
- 증타령~<산천초목>·<용천검>과 같이 산타령계로 보인다.

② 城邑 唱民謠에 영향을 준 본토민요는 京西道民謠(京畿道·黃海道·平安道民謠)로서 <육자배기>조로 된 全羅道民謠, <메나리>조로 된 慶尙道·江原道民謠의 영향은 안 보인다. 특히 본토의 산타령계 민요와의 관계가 짙다.

<관덕정앞>·<계화타령>·<봉지가>·<산천초목> 등 ①에서 든 민요 밖에 <노래가락>·<창부타령>·<양산도>·<청춘가>·<방아타령>·<이별가>·<산염불>·<개성난봉가>·<성주풀이> 같은 민요도 城邑에서는 물론 전도에서 불리는데 이것들도 모두 京西道民謠다.<sup>8)</sup> 특히 地理적으로 가장 가까운 全羅道 <육자배기>조 민요를 부르는 이가 거의 없다. 이것은 제주도민요목이 全羅道民謠 <육자배기>목과는 아주 다르고 京西道民謠 목과는 음악적으로 비슷한 데서 오는 이유로 봐진다.<sup>9)</sup>

③ 따라서 城邑 唱民謠의 전승은 본토민요의 연구를 위해서도 珍重한 가치를 지닌다.

城邑 唱民謠에 대한 음악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앞으로 더욱 加熟됨으로써 그 實相과 그 交流樣相이 어련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京畿道 廣州地方의 <길타령>의 사설 일부가 濟州 化한 것으로 보이는 <觀德亭앞>(신목사)의 사설부터 보기로 한다. 21년의 거리를 두고 1963년에 수집된 것과 1984년에 수집된 것 각 한편씩을 소개한다.

#### 관덕정앞(신목사) ①

- 조사날짜 : 1963. 12. 24.
- 조사한 곳 : 포선면 성읍리 813 현봉진택
- 부른 이 : 金昌彦(作故, 男, 당시 64세)

관덕정 문앞의 영리방 걸음을 걸어라  
 아기중홍 아장거려서 신목스 후리레 나간다  
 지화자 좋울소 대명당 허리로구나  
 아기중홍 아장거려서 신목스 후리레 나간다

너는 누며 나는 누나 상상땅의 조조롱이로구나  
 지화자 좋울소 대명당 허리로구나  
 아기중홍 아장거려서 신목스 후리레 나간다

8) 같은글, p. 297.

9) 羅運榮, 같은글.

관덕정앞(신목사) ②

- 조사날짜 : 1984. 6. 26.
- 조사한 곳 : 표선면 성읍리 873 현순옥댁.
- 선소리 : 趙乙善(女, 70)
- 후렴 : 李仙玉(女, 72) · 玄順玉(女, 56)

관덕정 문앞에 영리방 걸음을 걸어라  
 아기중홍 아장거려서 신목스 허리로 나간다  
 지화자 좋을소 대명당 허리로구나  
 아기중홍 아장거려서 신목스 허리로 나간다

너도나총각 나도나총각  
 휘양머리 마주잡고 입맞추는 총각이라  
 지화자 좋을소 대명당 허리로구나  
 아기중홍 아장거려서 신목스 허리로 나간다

노들강변 비둘기흔쌈  
 흰콩 흔방울 에리화 입에다 물고서  
 지화자 좋을소 대명당 허리로구나  
 아기중홍 아장거려서 신목스 허리로 나간다

비린콩 흔방울 입에다 물어  
 암놈이 물어서 에리화 숫놈을 준다  
 지화자 좋을소 대명당 허리로구나  
 아기중홍 아장거려서 신목스 허리로 나간다

숫놈이 물어 암놈을 주고  
 숫놈 암놈이 에리화 어르는소리  
 지화자 좋을소 대명당 허리로구나  
 아기중홍 아장거려서 신목스 허리로 나간다

늙은과부는 지등만 돌고하여  
 젊은과부는 에리화 반포짐 싸는다  
 지화자 좋을소 대명당 허리로구나  
 아기중홍 아장거려서 신목스 허리로 나간다

처녀총각은 달마중 가고  
 처녀와 총각이 에리화 달맞이 가는다  
 지화자 좋을소 대명당 허리로구나  
 아기중홍 아장거려서 신목스 허리로 나간다

산지포바다에 걸로선 떴고  
 김녕포바다에 에리화 조기선 떴구나  
 지화자 좋을소 대명당 허리로구나  
 아기중홍 아장거려서 신목스 허리로 나간다

提報者들로부터 살피자면, 故金昌彦은 1963년 당시 잘 알려진 民謠唱者였다. 시금한 목소리로 스스로없이 구성지게 불러 줬었다. 城邑 唱民謠 歌唱의 표본으로서 인식되었었고, <관덕정앞>을 비롯, <용천검>·<봉지가>·<개구리타령> 등을 썩 잘 불렀었다. 특히 <봉지가>와 <개구리타령>은 다른 提報者들이 흉내내기 어려워하는, 獨步의 境地였었다.

趙乙善은 20대에 일본에 나가서 8년간 지냈었던 외로는 줄곧 城邑에서 살아오는 소중한 제보자다. <홍애기>라는 발매는 노래를 비롯하여, <밭 밟는 노래>·<맷돌노래>·<방아노래>·<연자매노래>·<타작노래> 등 農業勞動謠는 물론이요 葬禮儀式謠인 <달구노래> 등도 능란하게 부른다. 더구나 <질군악>·<중타령>·<봉지가>·<오광산타령>·<계화타령>·<동풍가>·<관덕정앞>·<산천초목> 따위의 唱民謠를 李仙玉과 더불어 흥취있게 부른다. 그 술한 종류의 민요들을 능란하게 부를 수 있는 능력은 기억할 만하며, 따라서 번번이 公開行事에도 출연한다.

民謠唱으로 잘 알려진 李仙玉 역시 20대에 잠시 일본에서 지냈었던 외로는 즉 城邑에서 지낸다. 趙乙善과 함께 번번이 競唱行事에 나가 入賞한 경력도 지녔다. <아웨기>라는 발매는 노래 및 <맷돌노래>·<방아노래>·<타작노래> 등의 農業勞動謠와 <중타령>·<동풍가>·<봉지가>·<오돌또기>·<산천초목> 등의 唱民謠를 풍성히 지닌다.

趙乙善과 李仙玉은 많은 唱民謠와 <홍애기>·<아웨기>라는 발매는 노래 등을 싱그럽게 합창하기도 한다. 이들은 굼튼튼한 自彊不敗의 生活人임과 더불어 노래하는 동안은 그만한 수준의 詩人이요 음악가다. 文字媒材(written media)를 거치지 않을 뿐, 귀와 입을 통한 口傳文學에 대한 능력 및 태도를 實生活과의 관련 속에서 기록하여 밝히는 提報者研究는 記錄文學에서의 作家研究처럼 착실히 이루어져야 옳다.

<신목사>라고도 하는 <관덕정앞>은 京畿道 廣州地方의 <길타령>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그 사설이 조금 변하였다. 노래이름을 <신목사>·<관덕정앞>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은 濟州化된 사설에서 나온 이름이다. 본토에서 이 민요는 거의 불리어지지 않고 그 가락은 사설을 바꾸어 豐年歌로 불리고 있다. 觀德亭은 濟州市 한복판에 있는 亭子로서(寶物 제322호), 世宗 10년(1448) 辛淑晴牧使가 鍊武場으로 건립하였는 바, 굴곡 많은 제주도민의 哀歎이 담긴, 제주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다. 지난날 牧使 등 京來官의 威勢는 찌든 도민들에게 당당한 것이었으며 '신목사'가 드러나고 노래이름으로도 쓰이는 줄 안다.

<관덕정앞>의 사설을 살필 때도 이내 본토민요의 流入, 變容이라는 사실이 어렵지 않게 파악된다. '관덕정'·'영리방'·'신목사'가 드러나는 첫대목과 '산지포바다'·'김녕포바다'가 보이는 ②의 끝대목은 제주에 와서 扮裝한 부분이겠고 本土 唱民謠의 사설이 주장을 이룬다.

필자가 城邑을 처음 찾았던 때는 1959년이었고 金昌彦의 <관덕정앞>을 筆寫한 것은 세번째의 방문이었다. 1959년의 한여름, 비지땀을 흘리며 表善에서 냇기(川尾川)를 따라 허덕지덕 두어시간 걷고 城邑마을을 첫대면했을 때의 감회는 아직도 어련하다. 목양을 베풀며 열심히 걸어서 올라니뭇·시거니뭇을 거치고 城邑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마을 뒤를 둘러친 瀛洲山の 외외한 모습이 視界에 압도해 왔었던 그 첫인상은 아직도 신선하다. 그날밤 提報者들이 스스로없이 신명나게 불러가는 품은 여느 마을에서 쉽게 체험할 수 없을 만큼 시원스러웠다. 사실 첫대면인데도 여럿이 선소리와 후렴을 썩 어울리게 불러 주는, 탁 트일 만큼 시원스런 경험을 필자는 미처 겪을 수 없었다. <관덕



정앞)①은 세번째 방문했을 때 筆寫한 것. 휴대용 녹음기가 마련이 안된 때라 녹음은 못한 채, 사실만은 받아썬던 노트만이 골동품 같은 모습으로 남겨졌을 따름이어서, 이제도 생각하면 못내 아쉽고 마음 아프다.

21년의 간격을 두고도 <관덕정앞>의 ①과 ②는 그 첫머리 사실이 거의 같다. 口碑傳承이기 때문에 口碑資料는 傳承變異를 일으킴이 상례이겠지만, 한편 쇠떡미레같이 끈질길 만큼의 不易性이 깃들여 있음도 신통하다. 이 不易性은 모든 口碑文學이 지니는 生命力이다. 口碑文學作品도 일단 태어나면은 그 나름의 生命力을 지닌 채 자라나거니와, 變容하면서도 그 뿌리는 흔들림 없다.

여차피 <신목사>라고도 하는 이 <관덕정앞>은 京畿道 廣州 선소리 <길타령>과 가락이 같고 사실이 비슷하다면, 두 사실의 철저한 對比研究도 소중한 과제다. 이 글에서는 다만 개관에 그칠뿐, 對比考察은 후일의 과제로 돌린다. 이에 앞서 한 종류의 민요라도 여러 提報者의 자료가 확보되어야 함은 당연한 전제다.

잇따라 城邑 唱民謠 <봉지가>를 보기로 한다. 1963년의 자료와 1984년의 자료를 제시한다.

### 봉지가 ①

- 조사날짜 : 1963. 12. 24.
- 조사한 곳 : 表善面 城邑里 813 현봉진역.
- 부른 이 : 金昌彦(作故, 男, 당시 64세)

봉지가 진다 봉지가 진다  
원천강이 안개 리리리리리  
봉지가 진다  
에헤에 리라 리리리리리 야아향  
에헤에 리라 리리리리리 야아향  
아어에에 리라 아이얼씨고나

봉지가 진다 봉지가 진다  
청도리리리리리리리  
봉지가 진다  
에헤에 리라 리리리리리 야아향  
에헤에 리라 리리리리리 야아향

들어를 간다 들어를 간다  
삼밭덜로 열수 들어를 간다  
에헤에 리라 리리리리리 야아향  
에헤에 리라 리리리리리 야아향

뽕은 삼대 제외 놓고  
좁긴 삼대 춤을 춘다  
에헤에 리라 리리리리리 야아향  
에헤에 리라 리리리리리 야아향

같은 <봉지가>인데도 이십여년의 간격을 두고 오늘날의 것은 그 사실이 改變되었다. 衆流라는 말

이 있 듯, 세월이 가고 제보자마저 갈렸으며 사실의 變容은 오히려 당연하지만, 그 맥락은 끈질기게 통한다.

### 봉지가 ②

- 조사날짜 : 1984. 6. 26.
- 조사한 곳 : 表善面 城邑里 873 玄順玉댁.
- 선소리 : 趙乙善(女, 70)
- 후렴 : 李仙玉(女, 72) · 玄順玉(女, 56)

봉지가 진다 봉지가 진다  
 봄철남에서 봉지가 진다  
 에헤 이히이히 이히 야아야아  
 에헤 이히이히 이히 야아야아  
 야아 에헤에 에헥에 얼씨구나

잉어가 논다 잉어가 논다  
 청포장 속에서 잉어가 논다  
 에헤 이히이히 이히 야아야아  
 에헤 이히이히 이히 야아야아  
 야아 에헤에 에헥에 얼씨구나

앞집 사름은 인물이 절색  
 뒷집 사름은 과부가 명창  
 에헤 이히이히 이히 야아야아  
 에헤 이히이히 이히 야아야아  
 야아 에헤에 에헥에 얼씨구나

좁진 삼은 밀려나 놓고  
 훑은 삼은 멍겨나 놓고  
 에헤 이히이히 이히 야아야아  
 에헤 이히이히 이히 야아야아  
 야아 에헤에 에헥에 얼씨구나

자료 ①과 ②의 사설은 傳承變異를 일으켰지만, 그나마 첫편과 끝편은 같은 맥락이다. 본토에도 <봉지가>라는 같은 이름의 옛 민요가 전했었다. 제주도민요 <봉지가>의 가락에 나타난 旋律의 特性은 <산천초목>과 비슷한 데가 있어서 山打令系가 아닌가 생각되지만, 본토 민요 <봉지가>와 비교하여 더 연구해 봐야 할 일이라고 羅運榮은 지적하고 있다.<sup>10)</sup> 李輔亨은 <봉지가>의 音樂의 性格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sup>11)</sup>

城邑地方을 중심으로 매우 드물게 불리어진다. 陸地에도 同名의 古謠가 있었으나 서로의 관계는 알 수 없다. 뒷소리가 붙은 章節形式이다. 9박자의 매우 느린 세마치에 맞는다. 이 노래의 중간에 이른

10) 羅運榮, 같은 글.  
 11) 李輔亨, 같은 글, p. 298.

바 半該이 붙어  $\frac{6}{8}$ 박자가 거어 있다. 構成音은 sol, la, do, re, mi, sol이고 sol로 終止된다. 선율이 자연스럽고 매우 느리게 부르며, 특히 細목으로 “이히 이히”하고 부르는 뒷소리는 매우 우아하게 들린다.

〈관덕정앞〉과 마찬가지로 〈봉지가〉 역시 본토 민요의 流入, 變轉된 모습으로 보인다. 그 사설에서도 濟州 固有의 분위기는 풍기지 않는다. 그 연원이야 어떻든 비록 自生的인 노래가 아니더라도 〈봉지가〉 등의 唱民謠가 오늘날에도 전승됨은 그저 珍重하고 반가운 일이다. 그 採譜로서 얼른 눈에 띄는 것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文化財管理局, p. 299, 1974)과 《韓國의 民俗音樂：濟州道民謠篇》(韓國精神文化研究院, pp. 228~229, 1984)에 실린 두편이다.

城邑 唱民謠은 대부분이 본토에서 흘러들어와 본토의 가락과 사설이 바래진 것들이다. 그 바탕되는 가락과 사설은 본토 어느 곳의 어떤 민요인지, 누구에 따라 언제 어떻게 流入되었는지, 얼마나 바래졌는지, 왜 바래졌는지, 본토의 現傳 唱民謠와는 어떤 상관인지, 그 가락과 사설 및 口演實態를 살살이 살피면서 추적해야 할 과제는 실로 한라산처럼 쌓였다. 城邑이 5세기 동안의 고을이었기 때문에 이 유별난 唱民謠들의 流入, 傳播, 傳承媒體는 官妓들이었다고 想定되는데, 한편 사당패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12)</sup>

#### 4. 城邑 特有的 勞動謠

城邑에서는 유별난 唱民謠뿐이 아니라 稀貴한 勞動謠도 몇종류 전승된다. 도내 다른 마을에서는 들어볼 길 없는 〈아웨기〉·〈홍애기〉라는 발매는 노래를 지냈는가 하면, ‘말방애’(연차매)를 짚으면서 부르는 민요가 여느 마을과는 달리 제법 틀이 잡혔다.

제주도의 발매는 노래로서는 〈짜른사디〉와 〈진사디〉가 주장이다. 마을에 따라서는 본토 巫歌인 〈서우젯소리〉 가락을 借用하기도 한다. 〈서우젯소리〉·〈허웃맷소리〉라고도 하는 〈서우젯소리〉는 본토 무당굿의 祭次와 祭次 사이에서 ‘석살림’할 때 불리는 巫歌인데, 발매는 勞動謠로도 불리고 즐겨 놀면서도 부르는 까닭은 그 선율이 매우 유연하고 구성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웨기〉나 〈홍애기〉를 발매며 부르는 경우는 城邑뿐이요 그밖의 다른 마을에선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sup>13)</sup>

발매며 부르는 유다른 가락이, 그것도 〈아웨기〉·〈홍애기〉 두종류나 이 城邑에서만 전해지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城邑이 고을이었으며 본토에서 流入, 傳承되던 어떤 가락이 발매 때 借用하다가 定着되지는 않았을까 추측할 뿐 確證은 어렵다. 그 사설은 〈짜른사디〉·〈진사디〉와 넘나들므로, 그 열쇠는 音樂의 分析에 기대는 게 옳겠다.

12) 권오성·김영돈·이보형·한만영·최종민, 《韓國의 民俗音樂：濟州道民謠篇》, p. 21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13) 濟州大國語教育科, 《學術調查報告書, 第5輯, 蘭山里學術調查》, pp. 60~61, 1976.

### 홍 애 기

- 조사날짜 : 1984. 6. 26.
- 조사한 곳 : 表善面 城邑里 873 玄順玉댁.
- 선소리 : 趙乙善(女, 70)
- 후렴 : 李仙玉(女, 72), 玄順玉(女, 56).

어야뒤야 에에엥 엉헤에 에헤이 에헤이 사디로구나  
 음야 에헤에 에야 흥  
 저소리는 에헥 에헥 에헤에 어드레 들어가는소리  
 음야 에헤에 에야 흥  
 산전밭디 에헥 에헥 에헤에 낭싸레 들어가는소리  
 음야 에헤에 에야 흥  
 검질짓고 오호 오홍 에헤에 굴너른밭디  
 음야 에헤에 에야 흥  
 고분쇄로 오호 오홍 에헤에 여이멍 간다  
 음야 에헤에 에야 흥  
 앞명에야 에헥 에헥 에헤에 들어나오라  
 음야 에헤에 에야 흥  
 뒷명에야 에헥 에헥 에헤에 논두렁이 반돌만이 남아간다  
 음야 에헤에 에야 흥

제주도에서 <홍애기>라는 謠名은 통상 <꿀베는 노래> 따위를 가리키지마는, 城邑에서는 이처럼 <김매는 노래>의 노래이름으로도 쓰인다. 다음 <아웨기>라는 또 하나의 <김매는 노래>에 드러난 “검질짓고 굴너른밭디/고분쇄로 여이멍 가라/앞명에랑 들어나오라/뒷명에랑 나고나가라” 등의 사실은 <사디>에 常套의 愛用辭說로 곧잘 등장한다.

### 아 웨 기<sup>14)</sup>

- 조사날짜 : 1981. 5. 12.
- 조사한 곳 : 表善面 城邑里 846 吳菊姬댁.
- 선소리 : 李仙玉(女, 69)

어야뒤야 선이로구나  
 아아아양 에양에요  
 검질짓고 굴너른밭디  
 아아아양 에양에요  
 고분쇄로 여이멍가라  
 아아아양 에양에요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아아아양 에양에요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아아아양 에양에요

14)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 9-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p. 506~509, 1983.

낭도늬언 고목이뉘난  
 아아아양 에양에요  
 오던새도 돌아나간다  
 아아아양 에양에요  
 사름도늬언 백발이뉘난  
 아아아양 에양에요  
 오던임도 돌아나간다  
 아아아양 에양에요

城邑에는 또한 말방애(연자매) 짚으면서 부르는 <연자매노래>도 整齊되었다. <연자매노래>는 稀有의 勞動謠일 뿐더러, 가다가 수집되더라도 사설이 절그러운데, 城邑에서는 정연하게 불린다. 제주도에서는 발농사가 주장이므로 말방애로써 곡식을 장만하고 짚고 쏘고 빵아야 할 일이 태산 같았으며 말방애도 단단하고 조밀했었다.

### 연자매노래<sup>15)</sup>

- 조사날짜 : 1981. 5. 17.
- 조사한 곳 : 表善面 城邑里 846 吳菊姬덕.
- 선소리 : 趙乙善

어형어형 도오오요  
 어허도리 선이로고나  
 어형어허야 도오오요

건넌곳의 씨앗이긋언  
 어형어허야 도오오요  
 산을 넘어 뜰으래드난  
 어형어허야 도오오요  
 같은밭의 메마끗궤  
 어형어허야 도오오요  
 휘언번듯 나앗이난애  
 어형어허야 도오오요

나의눈에 요만이고난  
 어형어허야 도오오요  
 임의 눈에랑 언매나고우리  
 어형어허야 도오오요

산뎡호나 못산뎡호나  
 어형어허야 도오오요  
 붉은양지 지미나보라  
 어형어허야 도오오요

15) 같은 책, pp. 533~536.

이 사설은 본디 <맷돌·방아노래>에서 불리는 것이 가지런히 옮겨 왔다. 城邑民謠는 特有的 唱民謠와 함께 발맨다든가 말방애 짚을 때 부르는 독특한 勞動謠를 지님으로써 유다른 特性이 드러난다.

## 5. 結 言

우리는 이제까지 城邑民謠의 實相을 간추려 논의했는데, 이를 요약해 보기로 한다.

① 城邑마을 자체가 山間마을이면서도 5백년 동안의 고을이었다는 特異性格을 띠거니와, 이곳 민요 역시 제주도 어느 농촌에서나 전승되는 勞動謠 중심의 민요와 함께 오랜 고을이었기에 유달리 전승되는 술한 唱民謠(非機能謠)가 接木되어 다양하고 풍성해진 사실을 확인했다.

② <관덕정앞>·<용천검>·<봉지가>·<산천초목> 등 약 15종에 이르는 城邑의 唱民謠는 城邑에서 自生한 것이라기보다 본토의 옛민요가 流入, 變容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 자료들 가운데는 본토에서 거의 사라진 민요도 現傳되므로 한국의 唱民謠 연구를 위해서 역시 매우 珍重한 가치를 지닌다.

③ 이제까지의 音樂的 分析結果에 따르면 京西道民謠(京畿道·黃海道·平安道 民謠)와의 交流가 두드러지고, 全羅·慶尙·江原道民謠의 影響은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본토 山打令系民謠와의 關係이 짙은 것으로 드러났다.

④ 現傳되는 城邑 唱民謠의 사실 또한 본토민요의 사실을 대폭 받아들이며 그 일부만이 城邑民의 사정에 맞게 變容되었을 뿐이다.

⑤ 城邑에는 또한 발매며 부르는 <아웨기>·<홍애기>라는 특이한 勞動謠가 전승되며, ‘말방애’(연자매)를 짚으면서 부르는, 稀貴하고 산만한 <연자매노래>도 이곳에서는 整齊되었다.

城邑民謠는 그 종류가 多樣하고 豐盛한 뿐더러, 제주도의 다른 마을에서는 찾아 볼 길 없는 唱民謠 여러 종류와 일부 勞動謠가 특이하게 전해지므로 그 個性이 짙다. 여느 마을과는 달리, 더구나 제보자들이 민요를 즐겁고 興趣 있게 부른다. 특히 唱民謠의 傳承實狀과 본토에서의 流入過程, 流入媒體, 變容實態에 대한 조사 및 비교 연구는 우리의 緊要한 과제다. 城邑特有的 술한 唱民謠와 勞動謠 몇가지에 대한 音樂的, 文學的, 文化人類學的 측면에서의 면밀한 조사 연구는 그 提報者 및 背景調査와 더불어 앞으로 더욱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 Summery

## Aspects of Songup Folksongs

Kim Young-don

Songup, a village in the bosom of the hills in Pyoson-myon, Namcheju-gun, Cheju Island, was the capital of Chongui-hyon district during 1423-1914, when Cheju Island's administrative districts were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village was designated as a Folklore Village (Important Folklore Material No. 188) by the government in 1984, because it displays distinguishing features in its geography, history, society, culture and life-style. Those features characterize the village as a remarkable tourist spot as well as a valuable area in cultural-anthropological and folklore study.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Songup as an inland plains village, and as a capital for five centuries, are reflected in local folksongs: Along with labor songs easily found in any traditional Cheju village, many non-functional songs have been uniquely well-kept in the village due to its having been a capital.

The non-functional songs number about 15 items, and are represented by 'Kwandok-chongap', 'Yongchon-gom', 'Bongji-ga', 'Sanchonchomok', etc.. Most of these have not been created in the region, but were imported from the mainland, so that they have undergone some transformation. The way they were imported and transformed is a crucial research subject. For the subject is valuable also for the study of non-functional songs of the mainland, where almost all of them have disappeared, as these materials show. The non-functional songs of Songup remarkably show their origin from Kyongso-do (including Kyongki-do, Hwanghae-do, Pyongan-do) folksongs, and never from Cholla-do, Kyongsang-do and Kangwon-do folksongs. In particular, they seem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Santaryong*-branched folksongs. Words forms of Songup were imported directly from the mainland with little transformation.

Uniquely developed in Songup are such labor songs as 'Auegi', 'Hongaegi' which are sung while weeding. 'Yonjamae Norae', unlike in other regions where it is rarely sung, is sung in a well-arranged style in Songup. This is sung while pounding rice in a mortar called 'Nambangae' or 'Yonjamae'.

Songup folksongs reveal a great deal of variety and uniqueness including various kinds of non-functional songs, and several labor songs. Further researches, exploring backgrounds and informants together, are to be undertaken in the musical, literary, cultural-anthropological and folklore spheres.